

1. 정답 ①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끓어->끄너’의 경우 발음 과정에서 ‘ㅎ’이 탈락한 경우이다.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다.

2. 정답 ③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돌보다’는 ‘돌다’와 ‘보다’가 결합된 단어이다. ‘돌보다’는 어간 ‘돌’에 용언 ‘보다’가 직접적으로 결합한 경우로 ‘비통사적 합성어’에 해당한다. ‘용언+용언’의 구성에 앞 용언의 어간에 뒤의 용언이 바로 결합한 경우는 ‘비통사적 합성어’이다.

3. 정답 ④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높이’는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단어이다. ‘높이’가 ‘비행기가 높이 날았다’와 같이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‘부사’로 볼 수 있다. 반면 용언을 수식하지 않는 경우는 명사로 보면 된다. 이 문제에서 ‘높이’는 모두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‘명사’로 쓰인 경우이다.

4. 정답 ③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들’이 불가산성 단어에 붙어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‘보조사’이다. 따라서 불가산성 단어인 부사 ‘다’에 ‘들’이 붙어 ‘떠나간’ ‘주체’가 복수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‘보조사’로 보아야 한다.

5. 정답 ④ 문법과 국어생활->국어 생활

‘그럴 법하다’의 경우 ‘그럴’이 본용언이고 ‘법하다’는 보종용언에 해당한다. 따라서 ‘그럴 법하다’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‘그럴법하다’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. 반면 ‘그럴 법 하다’와 같은 띄어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.

6. 정답 ②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액세서리(accessory), 주스(juice), 애드리브(ad lib), 심포지엄(symposium)’가 맞는 표기이다.

7. 정답 ③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그리고’는 ‘그러하고’의 줄임말이다. 따라서 ‘그리고 나서’가 바른 표현이다.

8. 정답 ②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서술어 ‘아니다’는 주어와 보어를 요구한다. 따라서 ‘~가 ~이 아니다’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. 이때 ‘~가’ 부분이 ‘누구나’이고 ‘~이’ 부분이 ‘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’이다. 이 부분이 ‘것’ 명사절이 쓰인 부분으로 보어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문장은 명사절이 하나 쓰인 문장이므로 절이 두 번 이상 쓰인 문장이 아니다.

9. 정답 ④ 문법과 국어생활->현대 문법

‘배하고 사과하고 감을’의 ‘하고’는 접속조사이다. ‘배를 가져오너라, 사과를 가져오너라, 감을 가져오너라’를 이어주고 있는 ‘문장 접속조사’이다. 반면 ‘너는 성적이 누구하고 같으냐’의 ‘하고’는 부사격 조사로 ‘누구하고’를 부사어로 만들어 준다. 이 부사어는 서술어 ‘같으냐’를 수식

하고 있다.

10. 정답 ① 문법과 국어생활->국어 생활

선택지 ①번의 문장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자성분이 빠져 있어 잘못된 문장이라기보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바르지 못해 잘못된 문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. ‘~은 ~이다/것이다’의 구성이 바른 구성이라고 봐야 한다. 또한 수정 전의 문장이 ‘잘됐으면 좋겠다’이므로 수정 후의 문장 역시 ‘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’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.

11. 정답 ③ 문학->고전 문학

유유자적한 삶은 ‘화자’를 나타낸다. 주인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하늘에 떠도는 구름은 화자와 관련된다.

12. 정답 ③ 비문학->비문학

8~11번째 줄을 보면 ‘매체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’으로 보고 있다. 따라서 매체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 아닌 것이다.

13. 정답 ① 문학->고전 문학

서동요는 ‘삼국유사’에 전한다.

14. 정답 ① 문학->현대 문학

영달은 백화의 다친 다리로 인해 잘 못 걷자 업어 주기도 하고 부축해 주기도 하고 있다. 따라서 백화와의 동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.

15. 정답 ② 문학->현대 문학

‘말하기’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성격이나 작중 상황 등을 정리하여 들려주는 기법이다. 하지만 이 소설이 장면에서는 주로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. 따라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작가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‘보여주기(showing)’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.

16. 정답 ④ 한문->한문

‘남쪽의 굴을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’는 지문의 내용을 통해 ‘굴화위지’가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橘(굴) - 굴, 化(화) - 변하다, 爲(위) - 되다, 枳(지) - 탕자

굴이 변하여 탕자가 되다.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. 강남의 굴을 강북에 심으면 탕자가 되듯 사람이나 물건도 환경이 바뀌면 변한다. 긍정적 의미보다는 주로 문화의 부정적인 변질에 쓰인다.

17. 정답 ② 한문->한문

‘자의성(恣意性)’ ‘자’는 ‘방자할 자/ 마음대로 자’이다. 따라서 ‘방자(放恣)’의 ‘자’와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.

18. 정답 ④ 비문학->비문학

지문의 7~9번째 줄을 보면 플라톤은 '회화는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'고 주장하고 있다. 따라서 플라톤은 현실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.

19. 정답 ④ 비문학->비문학

(가)는 설명하는 글이고 (나)는 주장하는 글이다. 주장하는 글의 경우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. 그리고 필자의 주장에 공감되는 부분과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을 구분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가며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.

20. 정답 ② 문학->고전 문학

'구운몽'은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다.



